

익산 보석박물관, 스마트해진다

문체부 '5G 기반 실감형 전시콘텐츠·체험관 구축'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원 확보

익산 보석박물관이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전시 체험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시는 국내 최초로 보석박물관에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시켜 전 세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5G 기반 실감형 전시콘텐츠 및 체험관 구축' 공모사업에 보석박물관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원이 확보됐으며 20년 동안 활용했던 전시실 내 영상관을 현 트렌드에 맞는 쌍방향 전시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역특화산업인 보석과 백제역사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ICT를 접목시킨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2종의 실감콘텐츠를 수요기관에 설치해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전북 2개소, 경북·경남·인천광역시 각 1개소 등 총 5개 관광서와 출연기관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월 현장평가 계획서 제출과 현장심사 등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보석박물관은 영상실 면적, 천장높이, 어두운 상태, 위치, 지역 등 실감콘텐츠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문화정보원 관계자는 "보석박물관은 이



익산 보석박물관이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전시 체험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최신 트렌드를 결합한 콘텐츠가 전시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경원 보석박물관장은 "안내체계와 이동환경 등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함께 추

진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한층 더 품격 있는 보석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순화문화창고 3분기 정기대관 접수를 시작한다.

순화문화창고 3분기 정기대관 접수

순창군, 정기적으로 공연예술연습 할 동호회·예술가 방문 신청·대관료 무료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순화문화창고 3분기 정기대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화문화창고는 무용(110㎡), 음악(50㎡), 영상(17㎡), 개인(17㎡) 창작실 총 4개의 문화예술연습공간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고 대관료는 무료다.

패적인 시설과 함께 공연예술 연습에 맞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피아노, 드럼 등의 다양한 악기 및 각종 음향장비, 빔 프로젝터, 웹캠, 최신식 컴퓨터 등의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하루 3시간, 주 3회까지 순화문화창고에 정기적으로 공연예술연습을 할 동호회 혹은 예술가로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 후 접수기간(6.20.~6.24.)

동안 순화문화창고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내용에 따라 사용 대상자를 선정 후 오는 6월 20일 개별 통보한다.

순화문화창고는 휴관일인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군이 지정한 날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화문화창고(063-652-16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접근성이 좋은 농협창고를 개조한 순화문화창고에서는 시설 대관과 아울러 문화예술프로그램(연극), 청소년 팀업댄스,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등 문화강좌도 진행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청소년 미래 예술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공예 전문지 '손으로 공예로' 구독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구독료 무료·공예 트렌드 담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최신 공예문화를 소개하는 공예 전문지 '손으로 공예로' 구독자를 모집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1년에 4번 발행하는 계간지로 공예문화를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다.

소식지는 △공예 소재 △공예인 △공예공방 △공예품 △전문가 칼럼 △해의 공예마을 등의 테마로 최신 공예 트렌드를 담았다.

'손으로 공예로'는 현재까지 총 7회 소식지를 발행했으며, 오는 24일 소식지 8호(2022년 여름호)를 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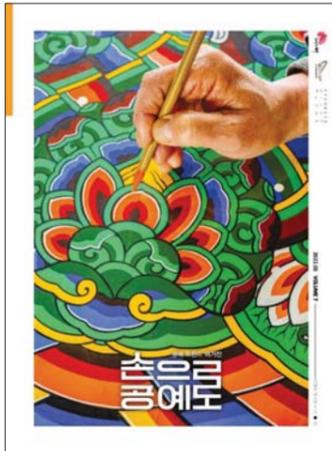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와 김정석 교수의 '우리 소재'에 대한 이야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방화선장인 인터뷰, 멕시코 공예 지역 소개, 여름

을 대표하는 공예품 소개 등 9개 테마로 구성됐다.

한편 기존 발행된 소식지 1호~7호는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의 공예 아카이브 탭에 업로드 된 'e-book'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손으로 공예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전주공예품전시관 김혜원 공예문화산업팀장은 "손으로 공예로는 대중에게 공예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아 만들어진 매거진"이라며 "앞으로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독은 무료며, 신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에서 할 수 있



다. 자세한 사항은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文 전 대통령 "‘실크로드 세계사’ 편집자 감사편지 받아"

"출판계 모든 분 응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실크로드 세계사'를 펴낸 편집자가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진중한 인문서를 만든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회의적으로 고민하던 차였는데, 대통령님이 '실크로드 세계사'를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쁘고 더 나아가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공감하며 출판계 모든 분을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는 지난달 27일 트위터를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태블릿PC로 트위터를 보는 모습과 함께 탁자 위에 책 '실크로드 세계사'를 올려놓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는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김희교 교수가 쓴 '정재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시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